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역발전

- (한국) 민관 협력 거버넌스 : 충남 홍성군 홍성통 사례
- (일본) 초연결 사회 구축과 Society5.0 : 스소노시(裾野市)를 사례로
- (일본) 일본 콤팩트 시티 추진 사례로 살펴본 성과와 한계

자치행정

- (오스트리아)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 가족친화 지방자치단체 감독

민관 협력 거버넌스 : 충남 홍성군 홍성통 사례

홍성군 협치제도 홍성통 도입배경

- 쇠퇴해가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전략에는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홍성군은 그중에서도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
 - 풀무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홍동면에서 풀무학교 출신 교사와 졸업생 등이 1990년대부터 오리농법 도입 등 친환경 생태마을 운동 활발히 추진
- 군 차원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홍성의 농업·농촌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, 2011년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출범하여, 유기농업특구 지정,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 추진
- 그러나 추진 분야별 집단의 역량 차이, 그들만의 리그, 영역침범의 문제 등의 이슈가 제기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, '홍성통'이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임을 조직·운영

홍성통 구성 및 운영 현황

- 홍성통의 설립 목적은 민관 협업 및 민간네트워킹 활성화, 지역의제 발굴·해소, 연계협력사업 발굴·추진, 지역인재 양성,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임
- 운영방향은 민관, 지역과 지방, 주민과 단체를 잇는다는 의미로, 홍성 농촌지역의 사업과 정책에 대해 행정과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서, ① 규정지어지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소통, ② 공유지식을 생성하는 장, ③ 다양한 민관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수행 등으로 정함
- 홍성통의 운영은 합의에 기초하고 운영주체의 파트너십의 크기나 참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택하였으며,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로서 관련 주체들이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협력의 사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논의
 - 홍성통은 대표 없이 행정 및 민간에 간사 각 1인을 두고 운영

- 관광통, 홍보통, 교육통 3개 분과로 운영되어 오다가, '18년부터 홍보통 대신 청년통이 신규 편성됨.
- 행정부문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, 민간부문은 흥성지역협력네트워크가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, 행정 12개부서, 마을 및 단체 116개, 재능기부 7개 단체가 참여
- 구성원은 마을만들기, 사회적경제, 도시재생, 관광, 귀농귀촌, 평생학습 등의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져 있음
- 발족 초기 존재했던 재능통은 행정의 농촌개발, 농정발전기획단과 민간의 마을활력소,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, 첫 협력활동으로 '13년 5월부터 '지역의 인재 찾기' 조사를 시작하여 80여명, 7개 단체에 이르는 인재풀을 구성
 - 흥성통 로고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고, 재능인 캐리커처, 미술교육, 생태조사, 벽화, 디자인, 홍보용 포스터 제작, 정책 자문, 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등 초기 흥성통 구성과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
 - 이후 '16년 2월 분과조정시 교육통 분과로 통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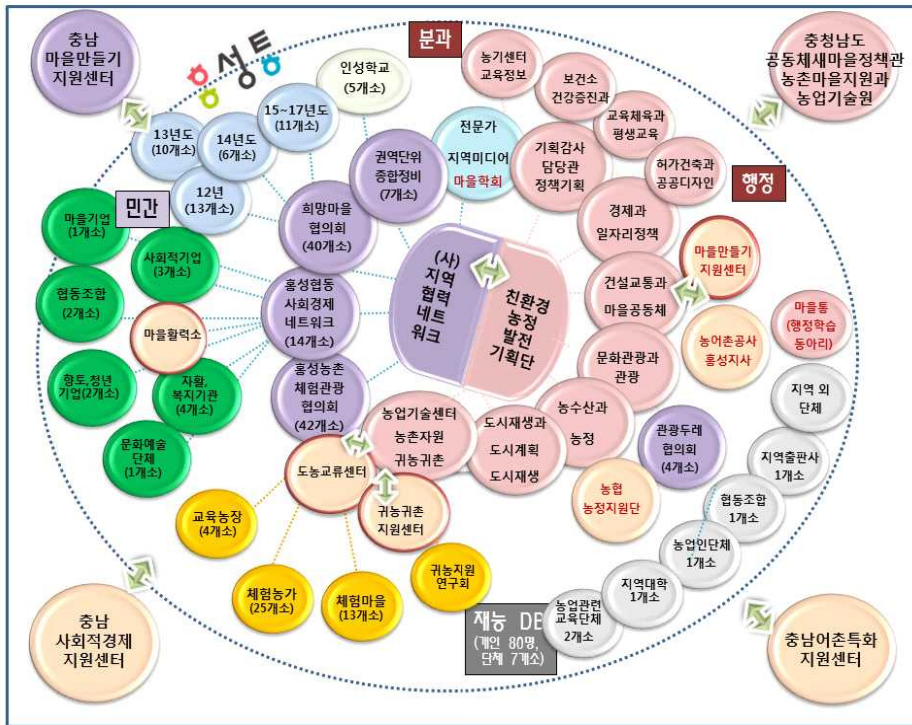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흥성군(2018), 「2018년 흥성통 운영계획」

| 그림 1 | 재능통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역 인재 캐리커처와 흥성통 로고

- 교육통은 행정부문의 평생교육팀 평생학습센터, 농업기술센터 교육정보, 기획단, 정책기획, 식품유통, 민간부문의 흥성희망마을협의회,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, 지역협력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활동
 - 주요내용은 교육수요조사 및 DB구축, 공동학습, 교육과정 조정 및 연계임
- 홍보통은 행정의 홍보팀, 공공디자인팀, 기획단, 민간의 재능풀 추천(귀농귀촌, 흥성신문,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, 디자이너 등)을 통해 구성

- 홍보통은 2014년 귀농귀촌분야에서 홍성군 브랜드 마련을 제안하면서 개설
- 공동학습을 통해 홍보방안을 마련하고, 관내 각종 행사에 회원 간 협력하여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정보 공유 채널을 마련해옴
- 2015년 재능통의 인력을 변경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, 홍성군 주요행사 홍보전략 논의(내나라여행박람회 등), 마을 콘텐츠 발굴 및 민간채널 연계방안 마련 논의, '홍성소식', '홍성신문', '홍주신문' 등 기존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소개, 홍성통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공동운영등을 실행
- 홍보분과 민간위원들은 미디어협동조합 '로컬스토리'를 창업하기도 함
- 관광통은 행정의 관광팀, 농촌자원팀(구 농촌체험팀), 기획단, 농정팀, 민간의 도농교류센터, 관광두레협의회, 마을지원센터, 농협농정지원단이 주축이 되어 활동
- 관광통의 경우, 행정과 민간 모두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활동한다는 것이 특징임



자료: 홍성군(2018), 「2018년 홍성통 운영계획」

◀ 그림 2 | 홍성통 참여주체

시사점

- 인구감소 등 고질적인 쇠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 - ‘느슨한 연대체’를 지향하는 논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활용하여,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제를 논의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있음
 -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보다 즉각적으로 논의 가능한 구조를 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엿보임
- 조직 설립에서부터 홍성통 자체는 협의기구이며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함
 - 의결권 없이 협의만 하는 공적 토론의 장으로서 홍성통이 가진 한계이기도 함

참고문헌

- 김상민·이소영(2018),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홍성균(2018), 2018년 홍성통 운영계획

이소영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)